

에필로그: 규제자가 아닌 조력자로

이날 설명회에서 만난 한 입주민의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솔직히 구청 세무과는 세금 고지서 보낼 때나 연락하는 곳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먼저 찾아와서 절세 방법을 알려줄 거라고는 생각 못 했습니다.”

과거의 세무 행정이 세금을 걷는 일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세금을 잘 낼 수 있도록 돋는 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법령 때문에 의도치 않게 가산세를 무는 억울한 일이 없도록 사전에 안내하고, 구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지킬 수 있도록 돋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입주민들의 입주를 축하하며 건넨 작은 안내 책자 하나, 따뜻한 상담 한마디가 구청과 구민 사이의 신뢰를 쌓는 벽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집에서의 출발이 세금 걱정 없이 행복하기만을 바라며, 우리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현장을 정리했습니다.